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 직구족’의 발길을 돌리려는 국내 유통업체들의 움직임이 한창이다. 11번가 모델들이 ‘핑크 블랙프라이데이’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11번가

블랙프라이데이 ‘직구 막아라 vs 직구 던져라’

〈해외상품 직접 구매〉

유통업계-카드업계 엇갈린 행보

국내 유통업계, 미국 할인폭으로 직구 막기 카드업계, 캐시백·배송비 행사 등 구매 유도

‘블랙프라이데이’가 뭐기에,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에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인 추수감사절의 다음 날을 뜻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국내 ‘직구족(해외구매를 즐기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거워 가운데, 국내 유통업체와 카드업계의 엇갈린 행보가 눈길을 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연중 최대 규모의 쇼핑 축제로, 연말까지 각종 할인행사가 진행돼 국내 소비자들 사이 해외직구를 가장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미국 행사에 그쳤지만, 2010년대 들어와 국내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해외 배송 및 구매대행 업체들의 증가로 배송·결제 등의 불편함이 해소된 덕이다.

이에 국내 유통업체들은 ‘해외 직구족’의 발길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미국 업체들이 내놓는 할인폭과 비슷하게 맞추면서 시기를 당겨 할인을 진행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이 대표적으로, G마켓은 지난 11일부터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 제품 300여종을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 중이다. 11번가는 24~28일 ‘핑크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열고 100여 개 브랜드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조두연 11번가 글로벌추진 유닛장은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에 대응하기 위해 몇 달 전부터 해외 셀러와 가장 좋은 상품을 최고의 가격대에 선보이기 위한 작업을 했다”고 소개했다. 또 남성현 G마켓 마케팅실장은 “관바가세 및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는 해외직구 상품도 특가로 만

날 수 있어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직구 쇼핑을 준비하려는 고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오프라인 업체도 예외가 아니다. 롯데하이마트가 27일까지 냉장고·세탁기 등 인기 가전 280억원 어치를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는 게 그 예다.

●카드업계 경쟁·캐시백 등 다양한 행사

반면 카드업계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경쟁·캐시백 행사 등 다양한 고객 혜택을 토대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면서 카드 실적 확대를 꾀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캐시백 이벤트가 눈에 띈다. BC카드는 12월11일까지 해외 온라인 가맹점에서 BC카드로 결제한 고객에게 최대 5만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카드는 11~12월 해외 온라

인 쇼핑 결제금액이 100달러 이상이면 5000원, 200달러 이상이면 1만원, 1000달러 이상이면 5만원, 2000달러 이상이면 10만원을 캐시백해 준다. 삼성카드 역시 홈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응모하고 10개의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삼성카드 100달러 이상 결제하면 합산 후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배송비를 절약하는 이벤트도 있다. 우리카드가 대표적으로, 12월23일까지 배송대행 모바일 앱인 ‘쉽켓’과 연동된 해외쇼핑몰에서 우리카드를 구매하면 선착순 2000명에게 배송비 50% 할인을 제공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외직구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 맞춰 고객들이 더욱 경제적으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해 주요 시즌에 맞춰 다양한 행사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유통업계, 방한인류 불꽃 경쟁 이상한파 예상에 기획전 등 할인판매 늘려

올 겨울 이상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통업체가 방한인류 판매 경쟁에 나섰다.

현대백화점은 12월4일까지 전국 15개 점포에서 겨울 세일을 벌인다. 침구·의류 등 방한 상품 물량을 브랜드별로 지난해보다 20% 가량 확대했다. 특히, 코트와 패딩 등 아우터 상품군의 세일 참여 확대가 눈에 띈다. 각 점포별로 코트와 패딩 등 인기 아우터 한정수량을 최대 70% 할인 판매하는 ‘윈터 스페셜 아이템’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도 12월4일까지 올해 마지막 정기 세일을 진행한다. 특히 아우터 물량을 전년보다 20% 이상 늘렸다. 방한인류 재고 상황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준비된 아우터 규모는 100만점, 총 1500억원이다. 롯데닷컴도 27일까지 ‘2016 스포츠레저 슈퍼패딩부츠쇼’를 진행한다. 롯데마트의 경우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겨울 침구 기획전’을 진행한다.

신세계사이먼 여주·파주·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은 27일까지 1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아우터와 스웨터, 부츠 등 겨울 시즌 상품을 최고 25% 추가 할인하는 ‘얼리 윈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패션 아울렛 세이브존도 29일까지 ‘방한용품 대전’을 전국 모든 지점에서 실시한다.

온라인도 마찬가지다. 오픈마켓 G마켓은 27일까지 네파와 K2, 노스페이스 등 인기 브랜드 아우터를 할인가에 선보인다. ‘등산 슈퍼 세일’ 기획전을 열고 대표 상품들을 최대 69% 할인 판매한다. 의류 외에도 아이젠, 등산배낭, 손난로 등 겨울철 야외활동에 필수적인 잡화 및 소품도 할인가에 판매한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애경 ‘2080 퓨어 치약’ 선포



2080 퓨어 치약

애경이 ‘2080 퓨어 치약’을 내놓았다. 레몬민트와 민트블라스트 2종으로 구성됐으며, 탈취와 세정 효과가 뛰어난 베이킹소다를 함유한 구강관리용 치약이다. 천연치약에 착안해 처방한 것이 특징으로, 구취 제거에 탁월하고 입안을 상쾌하게 유지해 준다. 가격은 2700원(120g).

락앤락 초경량 텀블러 ‘패더라이트 시리즈’ 출시



패더라이트 텀블러

락앤락이 초경량 텀블러 ‘2016 패더라이트 시리즈’를 내놓았다. 스크류형 뚜껑의 ‘패더라이트 텀블러’와 윈터치형 뚜껑의 ‘2016년형 패더라이트 텀블러’ 두 버전으로 구성됐다. 정밀하고도 얇은 내벽으로 초경량을 실현했으며, 기존 제품 대비 약 20~25%가량 무게를 줄인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2만4800원.

펫

반려동물에 ‘인식표’ 부착하셨나요?

동물등록제의 현주소

마이크로칩·등록번호 넣어 조회 가능
등록시스템 제한적 운용 활성화 걸림돌

반려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중이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유기동물이 줄어드는 등 효과를 보고 있지만 반려동물 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려인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게다가 동물등록제 대상에 대한 규제가 턱없이 높아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동물등록제 2년, 가시적 효과 눈길

동물등록제는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는 것은 물론 광견병 등 유기동물로 인한 전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지난 2008년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13년 인구 10만 명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법제화하고 2014년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동물등록제 대상은 강아지만이었던 것으로 고양이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강아지와 고양이의 특성이 다른 것을 고려해 강아지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고양이는 선택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내장형 인식표는 초소형 마이크로칩을 주사해 체내에 넣어 유기 시 리더기를 이용해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외장형’과 ‘등록인식표’는 펜

트 안에 마이크로칩이나 등록번호를 넣어 리더기 인식이나 번호 조회를 통해 주인을 찾아볼 수 있다. 세 가지 모두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이후 유기동물 수가 감소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2012년 전국 유기동물 개체수가 9만9254마리였던 것과 비교해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2013년부터 9만 7197마리로 감소했고 2014년에는 총 8만 1147마리로 대폭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동물등록제 시행지역도 2013년 142개에서 2014년 225개로 크게 늘었다.

외장형 스마트 인식표 펫종 황해수 팀장은 “별도의 도구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기동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NFC 전자태그 인식표를 이용해 유실동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개를 취득한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되면 등록연도 및 고유 등록번호가 기재된 감찰을 개의 목줄에 부착해야 한다. 만일 지키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스위스는 연방동물방역법이 있다. 소유하고 있는 생후 3개월 이내 모든 개들로 하여금 마이크로칩으로 전자인식이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물등록제 효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해야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의도대로 유기동물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반려동물 등록제대상(강아지) 마리수가 총 177만8747마리인데 비해 등록된 개들은 97만9198마리로 55%에 불과했다. 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등록제 시행 현황

연도	등록제 시행지역 (시·군·구)	등록 마리 수	유기동물 발생 마리 수
2013	142개	47만9147마리	97만1197마리
2014	225개	88만7966마리	81만147마리
2015	225개	97만9198마리	82만82마리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려동물 등록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이 내려지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동물등록제가 반려동물 문화로 자리잡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등록관리 시스템이 수의사회를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에 있다. 동물등록제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정한 등록대행 업체에 직접 찾아가 등록해야 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1만5000원, 등록인식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현재 2015년 기준 전국 동물등록제 시행기관은 3602개 중 동물병원 3061개로 9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동물등록제 대행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영업자이거나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동물판매업 영업자여야 한다.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내장형 인식표의 경우 동물병원에서 시술하는 것이 맞지만 외장형의 경우 수의사 면허가 필요없다”며 “동물등록제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선 미국처럼 인터넷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현진 스포츠초우 객원기자



지정 동물병원에서는 내장형 인식표 삽입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 1 러브펫코리아

반려동물 스마트 인식표 ‘펫종’ 입소문



반려동물 스마트 인식표 ‘펫종’(사진)이 반려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반려동물 인식표는 동물이 사라졌을 때 유기된 동물을 발견한 다른 사람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주인에게 찾아 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유기동물 발생을 낮추기 위해 국가에서도 인식표 의무화를 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펫종은 스마트폰 NFC 기능을 사용한 인식표로, 기존 스마트폰 인식표의 경우 별도의 앱 설치 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스마트폰 NFC를 켜고 인식표를 대면 자동으로 펫종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해 사전에 등록된 주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의 요람부터 무덤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자랑한다. 반려동물의 분양 및 입양일 기록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한 시간들을 성장앨범으로 남겨 이별 후에도 함께했던 추억들을 회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펫종 이용자 사이의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어 반려동물에 대한 유용한 정보공유도 가능하다.

김현진 객원기자

반려동물 미용품 ‘애슬리 크레이그’ 인기



반려동물 미용용품 ‘애슬리 크레이그’(사진)가 주목 받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반려동물 미용용품 프리미엄 브랜드다. 미국은 물론 유럽 애견전문가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대표 제품 ‘그레이하운드’ 빛은 3대에 걸친 장인들이 11회 수작업 공정을 통해 제작하고 있으며, 약 100년 동안 한 번도 제작 공정이 변한 적이 없다. 또 프리미엄 샴푸인 쇼샬롱 스파, 에센셜 라인들을 비롯해 빗, 가위, 나이프 등 다양한 미용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국내에도 이미 많은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김현진 객원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